

선군혁명력사에 아로새겨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 천만년 길이 빛나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4수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8돐을 축하하기 위해 24일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수도 평양에서는 주체의 건군사, 위대한 태양조선의 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열광하였다.

당창건기기념탑, 평양역, 평양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교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에 《조선의 행운》의 경쾌한 노래선율이 울려 퍼져서 경축무도회가 시작되었다.

무도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연무궁한 영광을 드림에 아름다움 춤바다를 펼쳐 보였다.

《인민의 나라》, 《당을 따라 펼쳐 나노 살리》 등의 노래선율에 맞추어 춤물결을 일으켜 나가는 참가자들의 열광하는 모습은 특이한 선군경도로 김정일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억년기쁨을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려웠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투철한 수평결사용위정신을 따라배워 혁명의 수뇌부를 한복술바치 결사용위하며 선봉들의 고결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수평의 유포관절전, 당정책용위정신의 선봉에서 열렬충혼의 삼을 펼칠이 빛내여갈 뜻깊은 기개가 무도회장에 나타졌다.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습격과 용맹을 남김없이 파시해갈 청년학생들의 의지의 분출인듯 《조국에 청춘을 바쳐가리》, 《달려가자 미래로》, 《승리는 대를 이어》의 노래가 편이 울려 퍼지는 속에 무도회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하는 경모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천정만경의 정세, 방패가 되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승리의 직선주로를 따라 폭풍처럼 내달려갈 불타는 열의가 어려웠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가 24일 개신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4수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8돐을 축하하기 위해 24일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수도 평양에서는 주체의 건군사, 위대한 태양조선의 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열광하였다.

당창건기기념탑, 평양역, 평양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가 24일 개신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4수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8돐을 축하하기 위해 24일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수도 평양에서는 주체의 건군사, 위대한 태양조선의 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열광하였다.

당창건기기념탑, 평양역, 평양

의 나라》, 《당을 따라 펼쳐 나노 살리》를 비롯한 노래들이 편이 울려 퍼졌다.

《최고사령관님 날리며 승리를 펼쳐가리》로 끝난 경축무도회는 경모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조선인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정신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농업근로자들의 덕성실화연단 <장군님과 농민들> 진행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덕성실화연단 《장군님과 농민들》이 24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진행되었다.

리명길 농민협동농장위원회 위원장, 리원중 황해북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서 일군들, 사리원시의 농민협동농장과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4수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8돐을 축하하기 위해 24일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수도 평양에서는 주체의 건군사, 위대한 태양조선의 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열광하였다.

당창건기기념탑, 평양역, 평양

농업근로자들의 덕성실화연단 <장군님과 농민들> 진행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덕성실화연단 《장군님과 농민들》이 24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진행되었다.

리명길 농민협동농장위원회 위원장, 리원중 황해북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서 일군들, 사리원시의 농민협동농장과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4수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8돐을 축하하기 위해 24일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수도 평양에서는 주체의 건군사, 위대한 태양조선의 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열광하였다.

당창건기기념탑, 평양역, 평양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공연 진행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한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공연이 진행되었다.

수도 평양에서는 주체의 건군사, 위대한 태양조선의 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열광하였다.

당창건기기념탑, 평양역, 평양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회령고향집을 방문

미애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사랑하고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신 백두산녀맹원들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도 배우고 배워야 할 것이다.

오산역기슭의 추녀는 고향집에 돌아선 그들은 민족수난의 시기에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어머니께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회령고향집을 방문

미애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사랑하고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신 백두산녀맹원들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도 배우고 배워야 할 것이다.

오산역기슭의 추녀는 고향집에 돌아선 그들은 민족수난의 시기에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어머니께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회령고향집을 방문

미애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사랑하고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신 백두산녀맹원들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도 배우고 배워야 할 것이다.

오산역기슭의 추녀는 고향집에 돌아선 그들은 민족수난의 시기에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어머니께서

강계시 강서고급중학교를 박금산고급중학교로 명명 영웅의 반신상 제막

【강계 1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강계시 강서고급중학교가 공화국영웅 박금산의 이름을 따 명명되고 그의 반신상이 학교에 세워졌다.

영웅의 군복을 입고 달려진 본분을 다해온 자강도인민보안국 공화국영웅 박금산의 위훈을 기리고 그를 추모하기 위하여 강서고급중학교를 박금산고급중학교로 명명하고 그의 반신상을 제막하게 된다



미래원을 훌륭히 개건 주군에게서

경제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를 세우며 전진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전진과학기술인재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업무에서 미태원개건의 명당지리에 미태원을 훌륭히 개건하였다.

광명철공부를 비롯한 군의 책임일군들이 시, 군에서 전진도시관을 훌륭히 꾸리고 리용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그 실천을 위한 투쟁에 대승을 힘있게 불어넣었다.

군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을 미태원개건을 위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에서 근로자들로 돌격대를 꾸렸다.

돌격대원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미태원개건투에 전진하였다.

평천공업대학 교원 리정남동무

경제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에서 최고로 10년 이상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자라나기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어느날 저녁 강령군 향리에서 사는 특류영예군인 조준영동무의 방문을 열고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아니, 자네가 아닌가?》 얼굴에 웃음을 띠고 특류영예군인인 그의 인형을 정답게 바라보는 그는 바로 평천공업대학 전자공학강좌 교원 리정남동무였다.

불과 한달전에도 찾아왔었는데 또다시 찾아와 조준영동무의 손을 꼭 잡고 친필의 감동으로 전강은 어떤가,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가 등 일일이 묻는 리정남동무를 바라보는 그는 순간 특류영예군인과 안해의 마음은 정말 짐짓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뜨거워졌다.

평양에서 강령군 향리까지 가는 수백리길이지만 리정남동무는 특류영예군인의 건강이 넘쳐나서 이렇게 자주 찾아오곤 하는 것이다.

사실 리정남동무가 특류영예군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이었다.

그때 리정남동무는 생각이 깊고 의욕이 넘치는 학생이었는데도 리정남동무는 자주 찾아가 안해의 마음을 정말 짐짓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뜨거워졌다.

평양에서 강령군 향리까지 가는 수백리길이지만 리정남동무는 특류영예군인의 건강이 넘쳐나서 이렇게 자주 찾아오곤 하는 것이다.

사실 리정남동무가 특류영예군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이었다.

그때 리정남동무는 생각이 깊고 의욕이 넘치는 학생이었는데도 리정남동무는 자주 찾아가 안해의 마음을 정말 짐짓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뜨거워졌다.

개성시도시건설사업소 조급한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발령시키도록 발령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를 세우며 전진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전진과학기술인재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업무에서 미태원개건의 명당지리에 미태원을 훌륭히 개건하였다.

광명철공부를 비롯한 군의 책임일군들이 시, 군에서 전진도시관을 훌륭히 꾸리고 리용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그 실천을 위한 투쟁에 대승을 힘있게 불어넣었다.

군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을 미태원개건을 위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에서 근로자들로 돌격대를 꾸렸다.

돌격대원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미태원개건투에 전진하였다.

평천공업대학 교원 리정남동무는 특류영예군인의 건강이 넘쳐나서 이렇게 자주 찾아오곤 하는 것이다. 그는 리정남동무가 특류영예군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이었다. 그때 리정남동무는 생각이 깊고 의욕이 넘치는 학생이었는데도 리정남동무는 자주 찾아가 안해의 마음을 정말 짐짓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뜨거워졌다.

개성시도시건설사업소 조급한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발령시키도록 발령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개성시도시건설사업소 조급한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발령시키도록 발령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를 세우며 전진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전진과학기술인재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업무에서 미태원개건의 명당지리에 미태원을 훌륭히 개건하였다.

광명철공부를 비롯한 군의 책임일군들이 시, 군에서 전진도시관을 훌륭히 꾸리고 리용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그 실천을 위한 투쟁에 대승을 힘있게 불어넣었다.

군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을 미태원개건을 위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에서 근로자들로 돌격대를 꾸렸다.

돌격대원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미태원개건투에 전진하였다.

개성시도시건설사업소 조급한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발령시키도록 발령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개성시도시건설사업소 조급한 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발령시키도록 발령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를 세우며 전진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전진과학기술인재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업무에서 미태원개건의 명당지리에 미태원을 훌륭히 개건하였다.

광명철공부를 비롯한 군의 책임일군들이 시, 군에서 전진도시관을 훌륭히 꾸리고 리용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그 실천을 위한 투쟁에 대승을 힘있게 불어넣었다.

군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을 미태원개건을 위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에서 근로자들로 돌격대를 꾸렸다.

돌격대원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미태원개건투에 전진하였다.

